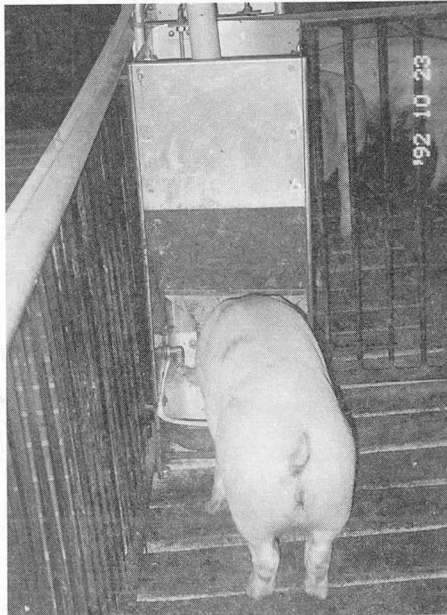


기존제품 10여종 비교 사양시험후 문제점 보완해 개발

본회 김해지부 소속 회원인 태화축산의 이시길사장이 요즘 양돈장에서 설치됨이 일고 있는 습식급이기를 국내여건에 알맞도록 개발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시길사장은 여느 양돈인들과 마찬가지로 폐수발생과 사료허실을 줄이기 위해 몇년전부터 많은 고심을 해왔다. 그러던중 습식급이기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유럽에서 수입할 계획을 세웠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 포기하고 말았다. 수입할 경우 비용이 개당 18~22만원이 소요돼 엄두가 안났고, 또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체개발하기로 하고 금년 3월부터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10여종의 국산, 수입된 습식급이기를 서너개씩 모두 사들여 비교사양시험을 개시했다. 시험중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십차례 반복시험을 거친후 10월중순 국내여건에 알맞는 완벽한 습식급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사장은 습식급이기를 양돈농가들에게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농장과 성립종돈등 습식급이기를 설치할 계획하고 있는 몇개 농장과 나누어쓰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최



홍 보 부

자체개발한 습식급이기를 이용해 사료를 먹고있는 태화축산 비육돈

상의 제품을 고집한 것이다. 그래서 제품을 완성하고도 상표가 없다.

폐수발생, 사료허실 완벽히 방지

이번에 개발한 습식급이기의 특징은, 자돈용과 비육돈용 2가지로 성장단계에 맞게 제품을 만들고, 폐수발생과 사료허실을 완벽하게 방지했다는 점이다. 부식과 사료의 브러지 현상을 막기 위해 본체는 스테인레스를 이용했고, 급이구 부분만 튼튼한 FRP제품으로 만들었다. 때문에 이 제품은 반영구적이다. 급형을 뜨는데는 2,500만원이나 소요됐다. 사료는 돼지가 사료를 먹을때 급이구 안에 있는 넘적한 판을 머리

로 밀때만 나오게 고안했다. 그래서 먹다남은 사료가 급이기통에 남아 있지 않아 사료부식을 방지해준다. 니뽀은 돼지가 장난을 치지 못하고 누수방지를 위해 밑으로 향하게 설치했는데, 기존의 니뽀형식대신 단추모양으로 만들었다. 가루사료와 펠렛사료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자동급이장치를 이용해도 된다. 급이기는 높이 1m, 넓이 34.5cm, 길이 35cm로 기존의 제품보다 높이를 10cm늘려서 사료를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고안했다. 1개 급이기에 15~20두의 비육돈을 수용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돼지가 사료를 먹을 때 다리를 급이통에 넣지 못하도록 특수 고안했다는 점이다. 돼지들은 앞다리를 급이기통에 넣고 사료를



FRP로 만든 자동용(좌)과 비육돈용 습식급여기 모습



습식급여기를 개발한 이시길 사장

파헤쳐 사료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 제품은 급여기동안의 경사를 더주어 미끄러지도록 고안했다. 그래서 사료를 조금이라도 허실하는 법이 없다. 습식급여기를 자체개발, 생산, 설치함으로써 수입비용의 1/2~2/3를 절감할 수 있었다.

양돈농가 희망할 경우 원가공급 계획

이사장은 10월 중순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 자신의 농장자돈, 비육사돈 설치를 거의 끝냈고, 같이 제작하기로 한 성립축산 등에서도 한창 설치중이다. 이들 농장에 설치하는 숫자만도 1,000여개에 이른다. 이사장은 자체농장 설치가 완료되면 양돈농가가 원할 경우 개발이익을 함께 나눈다는 측면에서 원가에 공급해줄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장은 태화축산이라는 종돈

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흑시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개인의 명예 뿐만 아니라 종돈장에도 치명적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시험에 시험을 거쳐 완벽한 제품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더 덜어주기 위해 자동용은 FRP와 PE등 2제품을 만들고, 비육돈용은 스텐레스+FRP, 무늬철판(체크 프레이트), PE제품 등 3종류를 만들어 경제적 형편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스텐레스가 가격이 제일 비싸고 무늬철판, PE 제품의 순이다.

내년부터 정부는 양돈장에 대한 폐수단속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양돈농가들도 이에 맞추어 폐수처리시설 설치는 물론, 폐수발생을 줄이기 위해 습식급여기 설치가 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판중인 습식급여기의 수도 국산, 외제 등 십수종에 이르고 있고, 가

격도 천차만별이다. 또 우수한 품질의 제품도 있으나 품질에 대한 완벽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기존제품을 모방, 철공소 등에서 마구 생산, 판매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이사장은 「양돈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습식급여기를 설치한후 얼마안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철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피해는 결국 양축가만 보게 된다」고 밝히고, 「습식급여기를 설치할때는 사전에 여러 제품을 비교사양 시험한후 경제성 있는 제품을 선택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무튼 본회 회원에 의해 폐수발생, 사료허실 부식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값싼 국산품 습식급여기를 개발한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이를 계기로 국내 양돈농가들이 생산비를 조금이나마 절감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